강정항 크루즈뱃길 곳곳 암초… 안전 비상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수심 낮은 4곳에 연산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훼손 우려" 현상변경 불허
도, 항로변경 등 개선안… 사전 검토 소홀 등 지적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선 주요 항로에서 연산호 암초가 확인돼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 이 항을 통해 제주를 찾은 14만8000t급 초대형 크루즈 퀸메리2호가 정박해 있는 모습. 한라일보DB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에 조성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선 주요 항로 여러 곳에 연산호 암초가 확인돼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크루즈항 준공 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검토 소홀 등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해군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대형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서귀포 지역의 크루즈 관광을 선도할 기반 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주요 항로에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확인돼 제주도가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이프텍리서치에 의뢰해 '서귀포 크루즈항 항로고시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진행,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주요 항로에 수심이 낮은 4개 지점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보면, 크루즈선 규모의 배가 들어오려면 수심 12.4m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4개 지점은 수심 9~11m 수준으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크루즈 선적이 입항하려면 이 지점을 피해 돌아가거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월과 5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입항했던 크루즈선 2척도 이 지점을 빙 돌아 입·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지난 4월 문화재청에 연산호의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2일 불허를 통보받았다.

당시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훼손이 염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로 변경 및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당초 목적처럼 활성화됐을 경우다. 대규모의 선석 여러 척들이 동시에 입·출항하게 되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강제도선구'이기 때문에 암초 지점을 잘 아는 도선사가 운전하고 있다"며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위원장 바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향방은?

위원장, 민주당→한국당 교체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교체돼 앞으로 법안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행안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 갑)을 선임했다.

여야는 지난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법안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맡았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20대 국회 남은 기간 행안위 법안소위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 구성의 경우 기존 구성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민봉 의원이 행안위를 사임하면서 총 2명의 결원이 생겼다. 앞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명씩 더 선임해 민주당 5명(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외1인), 자유한국당 4명(이채익·윤재옥·홍문표 외1인), 바른미래당 1명(권은희) 등 총 10명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채익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밀린 법안이 굉장히 많다. 가능한 한 여야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무쟁점 법안은 속도를 내서 법안소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앞선 또 모범적인 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시동
도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1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역의 부정적 사건을 활용한 평화관광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5·18기념재단 고재대 부장, 국성하 박사,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제주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정민구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비록 부정적 장소 자산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상생과 평화,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인구 변화, 모든 정책 반영을"

원 지사, 주간회의서 강조
변화 대응 과제 관리 주문

제주도정이 인구추계 변화에 맞춘 정책의 업그레이들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 추계를 토대로 행정의 법정 계획과 세부 사업을 정립하고, 도민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 과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 인구변화 대응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에서 "인구는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그것에 기초한 제주의 미래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세부계획, 개별 사업에 이르기까지 대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인구 추계를 통해 5년 뒤, 10년 뒤 전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사회적 부담 등에 대해 탄탄한 근거가 명확히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통계와 수치에 대한 정리를 요청했다. 또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최상위 계획부터 주택공급, 기반 시설, 상하수도, 관광 등 모든 분야가 인구 추세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한다"며 "제주도민의 숫자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에 대한 분석과 변화에 대한 예측·검토 내용이 모든 비전과 계획, 정책 사업들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관광객의 숫자와 더불어 제주도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비전이나 불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탄탄한 근거로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활발한 논의와 연구 등을 통해 계획에 따른 점검과 목표 방안을 정비하고, 인구 정책이 스며든 제주의 비전과 정책들을 업그레이드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문정인 특보 제주서 특강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는 13일 제주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남·북·미 정상 3자회동의 의의'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마련한 이날 특강은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난 6월 30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 3자 회동의 의의와 향후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해맞이 숲길'. 사진=서귀포시 제공

붉은오름 휴양림 숲체험
화~토요일 매일 2회 운영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운영되며 계절별 시기에 걸맞은 특색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붉은오름자연휴양림(782-9171)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선 목재 목걸이 만들기, 우드버닝 체험 등 간단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는 제주 역사를 품은 상잣성 주변을 거릴 수 있는 '상잣성 숲길'과 오름 전망대에서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붉은오름 오름등반로', 말찻 오름 정상까지 이어지는 '해맞이 숲길'과 최근 조성된 교통약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숲체험을 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숲길' 등이 조성돼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윤기자

제주청년 도외직업훈련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제주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신청자격

ㅇ 연령기준 : 만 18 ~ 39세 미취업 제주 청년 (3년범위내군경력가산인정)
ㅇ 제주도 주소 등록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1년 이 두고 있는 자. 단,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포함
ㅇ 참여자 : 도외에서 시행하는 **실업자(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 참여자를 말함

2. 지원대상 과정

ㅇ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내 미 개설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①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HRD 직업훈련과정
②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함.
※ 단,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지원 불가
③ 그 밖의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하며 본 사업 취지 및 취업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판단

3.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년 300만원 범위 내
1) 숙박비 :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 지출액
2) 교통비 :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 (화물, 차량선적 등 제외)
3) 자격증취득비용 : 수료한 직업훈련과정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응시료 실비
※ 최종 취득분에 한하여 지원(필기, 실기 응시료 포함)
ㅇ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단 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4. 참여제외 대상

ㅇ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워크넷)이 되어 있지 않은 자
ㅇ 교육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ㅇ 사업자등록자
ㅇ 고등학교 1,2년 및 대학 1,2년 재학 중인 자(동 학년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 4학기(2년제 대학은 1학기) 과정 이상 수료자(재학·휴학생 포함) 및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해당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폴리텍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
ㅇ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ㅇ 동 사업 참여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참여신청 및 접수

ㅇ 신청·접수 기간 : 2018.8.13.~ 2019.12.31.
– 사업기간 운영 중 예산 소진 시 사업마감 공고(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기업지원사업공고)
ㅇ 신청·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창출센터 강수만 대리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
(☎ 064-805-3335, E-mail : soomani9@naver.com)

2019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신규·갱신 인증 신청안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6.4.)에 따라 **2019년 신규·갱신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공고일 ~ 8.27(화)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현장실사 실시)

□ 신청대상

1) 신규인증 –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
2) 인증갱신 – ①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영체
②인증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인증기업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신규인증 신청

□ 설명회 개최

2019.7.25.(목) 10:00, 2019.8.1.(목) 10:00,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제주시 첨단로 213-65)
*설명회 참석신청서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 (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참조)
**설명회 장소 인원제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7월23일(화)18:00)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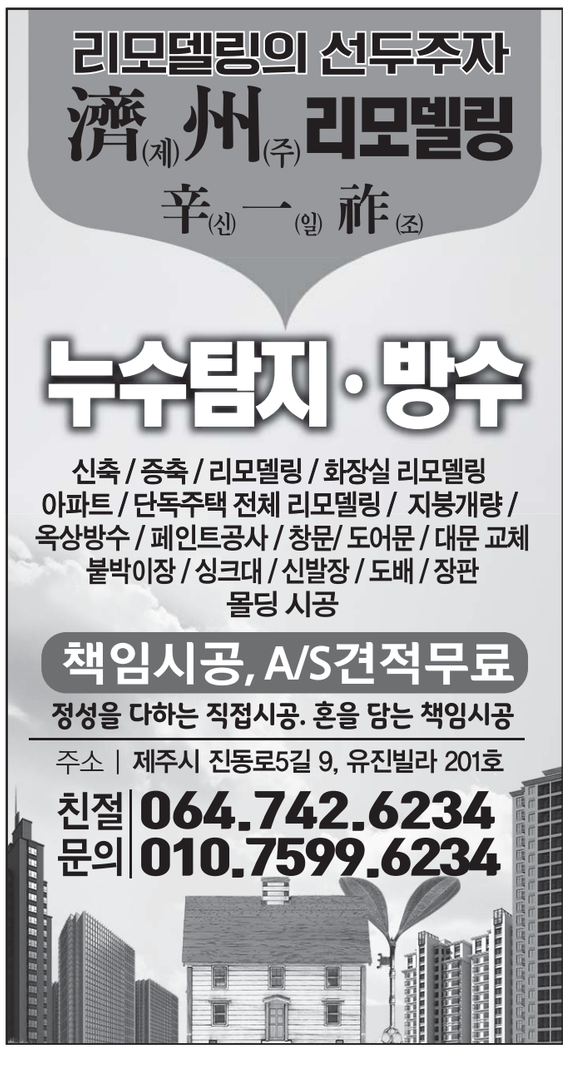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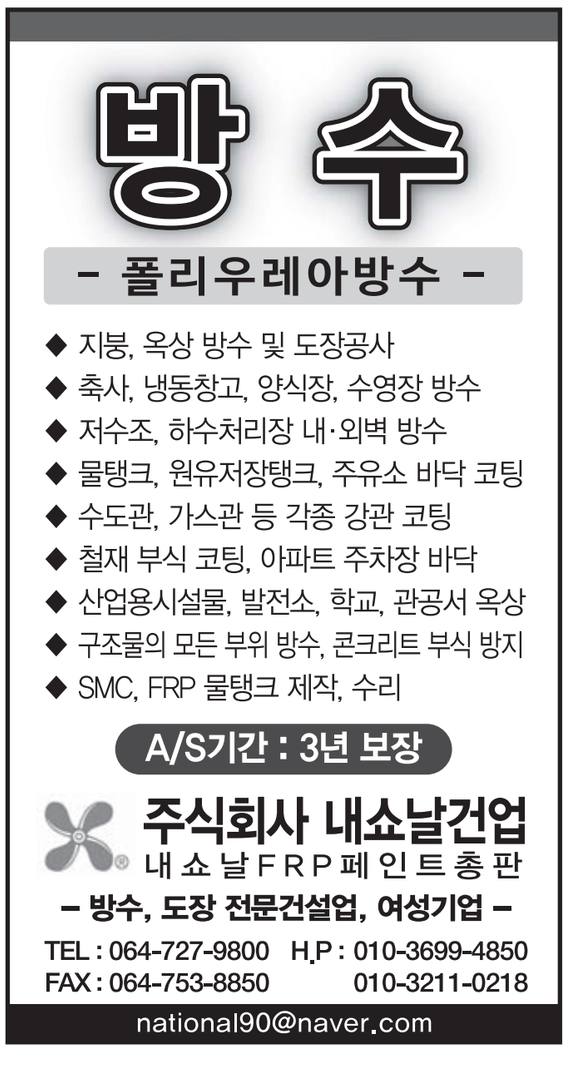
□ 인증자격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사업 형태 및 주원료 비율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여부**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8백만원('16년 37,197천원, '17년 38,239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 인증신청 서류(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인증신청 접수 :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ㅇ 접수방법 : 직접 제출(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또는 우편접수(2019.8.27.(화) 18:00 도착에 한함)

□ 문의처 :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메일 : stormand@jri.re.kr / 전화 : 064-722-7917 / Fax 064-722-7919